



추억속으로 / 딱지본

식민지시절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된 딱지본 소설 다시 만나다

(재)아단문고(이사장 김호연)가 최근 '복각본 고전총서' 10권을 발행했다. '아단문고 고전총서'라는 이름으로 나온 고전총서는 딱지본의 원래 표지와 본문을 그대로 살려서 옛스러운 맛이 나도록 배려했다. 전우치전, 심청전, 저마무전을 한데 모은 육전소설을 필두로 여중화, 불로초, 박씨전, 숙영낭자전, 장화홍련전, 장끼전, 홍길동전, 조용전, 월봉산기 등이 1차분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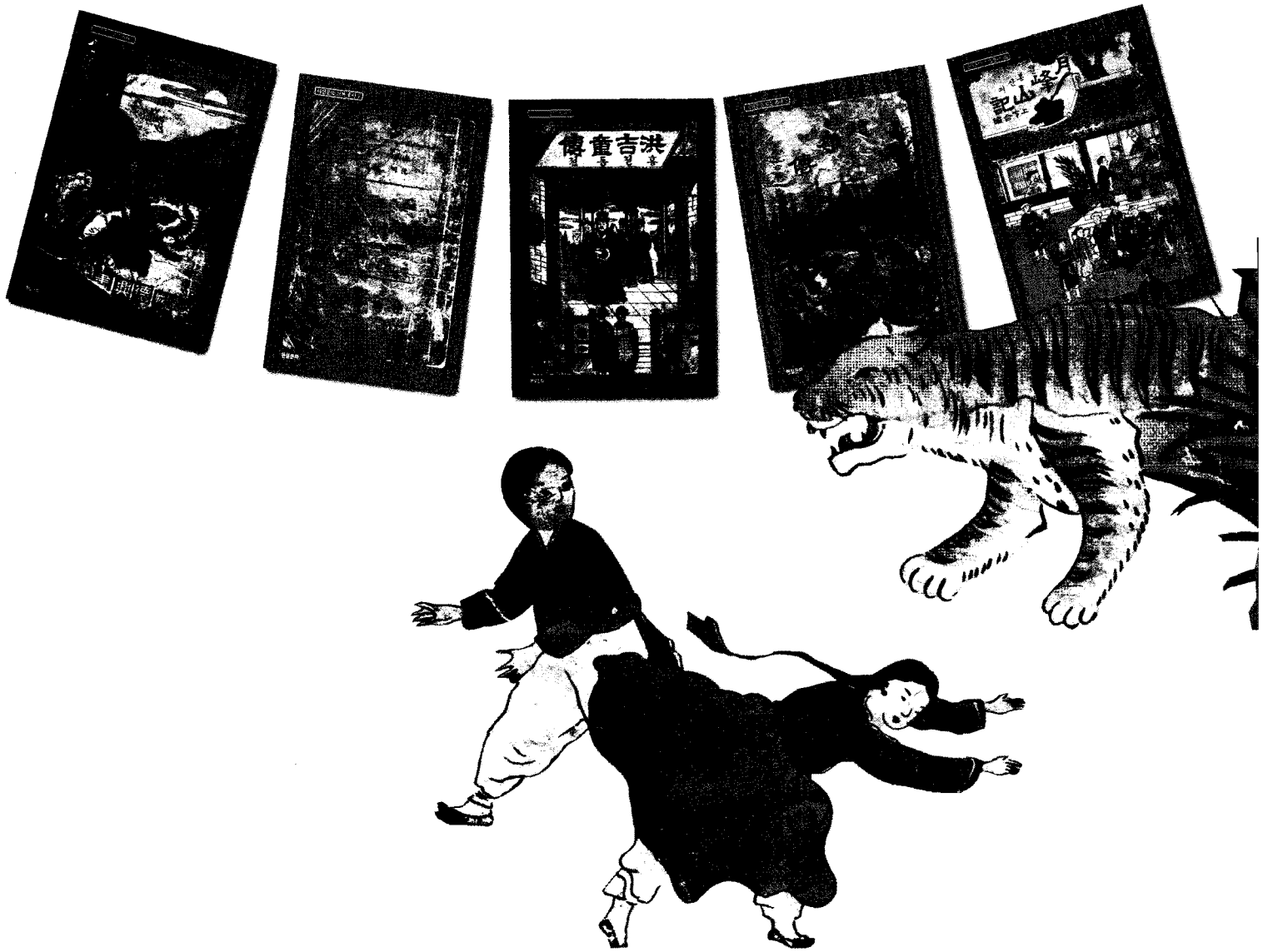
딱지본 또는 육전소설

딱지본은 1923년부터 신문관에서 주로 문고본으로 발행된, 값이 싼 소설책들을 말한다. 이 시기에 와서 고소설은 19세기말에 도입된 근대적 인쇄 기술에 의해 낱활자 인쇄물의 문고본인 딱지본, 즉 육전소설로 널리 보급됐다. 낱활자를 사용한 조판 인쇄는 공정이 매우 빠르고 비용이 저렴했다. 18~19세기에 유통되었던 고소설의 방각본 출판은 신속하면서도 폭넓은 소설의 보

급, 유통을 이루어지게 했다. 판형은 주로 B6판으로 소형이고 이런 소설책은 대개 그 표지가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쓰이던 딱지처럼 울긋불긋 해서 딱지본이라고 불렸으며, 그 가격이 당시의 국수 한 그릇 값이던 6전 정도여서 '육전소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필사와 목판의 뒤를 이은 딱지본

딱지본은 필사·목판에 이어 20세기 초반에 새로운 활자로 찍어낸 책이다. 내용별로 보면 고소설을 비롯하여 신소설, 신파소설, 가요집 등이며 이들은 겉표지에 울긋불긋하게 내용과 관계되는 그림을 그려 넣었고 분량은 국판 100면 내외의 소책자다. 첫 출판은 1908년에 간행된 이인직의 작품인 신소설 '은세계'이며 이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에 쓰여진 소설작품들을 신소설과 구분하여 고대소설이라고 붙여 간행하기도 했는데 출판사에 따라 내용을 약간씩 변경하여 간행하거나 제목



으로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소설이 처음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1908년 광동서국에서 간행한 강감찬전이며 그 후 1911년에 이해조가 춘향전을 개작하여 옥중화란 명칭으로 박문서관에서 간행했다. 이러한 고대소설의 간행은 상업성을 띠고 각 출판사에서 경쟁적으로 간행되어 소설독자층의 확대를 가져왔고 희귀한 책의 파생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초창기 고대소설을 간행한 출판사는 유일서관, 박문서관, 신문관, 친구서림, 회동서관, 조선서관, 영창서관 등 여러 출판사가 참여했다.

신파소설의 간행과 독자층 확보

신파소설은 딱지본의 형태로 간행되지만 고대소설이나 신소설과는 달리 고대소설의 개작이나 보기 좋게 꾸미는 것도 아니며 신소설처럼 개화의식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창작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 표

지에는 순정비극소설, 탐정활극소설, 비극가정소설, 의협연애소설, 실정애화소설, 모범연애소설 등의 표제가 붙여져 있는데 대부분이 애정비극 소설이다. 이의 간행은 신소설과 같이 20세기 초에 간행되기 시작해 해방이후까지도 계속되었다. 신파소설의 독자는 대부분 근대교육을 받지 않은 농어촌의 부녀·노인계층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폭은 상당히 넓었다. 작자는 무작자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발행자 자신이 직접 원고를 쓰기도 하고, 무명·유명작가들이 썼으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등이 있다.

다양한 내용과 삽화

소설의 내용은 중국 고전소설에서부터 우리 고대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반인이 쉽게 보도록 순국문으로 했으며, 가격이 싸고 페이지가 얇았다. 발행 시기는 한말부터 시작해 가깝게는 70년대 말까지 발행되

었다. 긴 역사를 가진 값싼 책으로서 표지의 삽화가 우리의 민화같이 거침이 없고 자유스럽게 표현된 아주 독특한 책이다.

다만 간간히 중국의 전래 소설이나 무협지를 내용으로 한 책 표지에서는 중국의 형상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실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시대별 변천에 다른 소재, 그림의 형태, 색채 등을 통해 당시의 실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장점도 발견된다.

표지의 삽화를 살펴보면 오래된 것일수록 신중을 기한 흔적이 엿보이며 후기로 넘어올수록 무명의 화가가 대충 그림을 그린 듯하다. 활자체를 살펴봐도 오래된 것은 활자에 힘이 있고 인쇄가 선명한 반면, 후기로 올수록 활자가 가늘어지고 종이 질도 떨어지고 인쇄 상태도 엉망이다. 고서의 형태 또한 광복 전과 후를 비교하면, 광복 전의 것이 훨씬 정성스럽게 제작되었으며 표지화 그림도 옛것이 월등하게 섬세함을 엿볼 수 있다. 딱지본은 우리나라 초창기의 삽화로 된 표지화의 독특한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저급한 문학작품으로 취급되어 온 딱지본

딱지본 대중소설은 육전소설, 딱지본으로 불리며 저급한 문학작품으로 취급되어 문학사와 연구사에서 방치되었었다.

그러나 딱지본 대중소설은 상업적 상품으로 기능했고, 근대적인 대중독자를 형성했으며, 당대 대중들의 취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대중문학 텍스트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현재까지 기본적인 서지작업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1920년~30년대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전성기였으며 세창서관의 판본이 대표적이다.

세창서관에서 발간했던 딱지본 대중소설들은 저렴한 가격에 엘리트 대중독자가 아닌 일반적인 대중독자들의 흥미에 부합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딱지본 대중소설은 식민지 시대 활발하게 간행되었고 1960년대까지도 명맥을 이어왔지만 대중독자들의 경험과 체험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해방 이후에는 쇠퇴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러나 한때 당대를 풍미했던 딱지본 대중소설들은 평범하고 보편적인 대중 독자들을 목표로 창작되고 유통되었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 당대 대중들의 관심사 및 그들이 수용하고자 한 현실세계에 대한 모습을 살필 수

있고, 대중들의 근대적 지향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서사 문학사 전반을 돌이켜 보는 일

20세기 초, 기존의 서사 텍스트 양식들은 새롭게 등장한 매체 즉 신문과 딱지본을 만나 순발력 있게 스스로를 적응시켜 소설이란 장르로 자리 잡았다.

소설은 독자를 만나기 위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매체를 필요로 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대중을 독자와 소비자로 삼는데 성공하긴 했으나, 소설의 위기는 오래지 않아 찾아왔다.

1930년대 무렵부터 신문, 잡지의 상업적 저널리즘 경향이 심화되면서, 소설은 지나치게 대중성과 상업성에 맞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 영화, 방송과 같은 신매체의 인기에 위협을 받기도 했다. 21세기 이후, 매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 문학은 더 이상 종이 위의 인쇄물의 형태로만 소통되는 대상이 아니며, 소설은 서사적 텍스트의 대표자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다매체 시대를 맞이해 서사 텍스트와 매체를 둘러싼 대중적 역학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더 나아가 매체와 대중성이란 변수를 키워드로 삼아 우리의 서사 문학사 전반을 돌이켜 바라보는 일 역시 흥미로울 것이다.

작품으로서 생명력 불어 넣어

딱지본류와 함께 1920~30년대에는 이광수, 이효석, 염상섭 등 주요한 작가에 의해 본격소설류가 선보이면서 소설의 면모가 분화·공존하는 양상을 띠었다. 그리고 이러한 두 흐름은 현대로 이어져 통속소설과 본격소설이라는 경계를 만들기도 했으나, 이는 갈래 구분의 편의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통속소설이든 본격소설이든 독자가 있을 때에 비로소 작품으로서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책이 넘쳐나는 시대, 그러나 정작 책을 사서 보는 독서인구가 자꾸만 주는 이유를 딱지본을 펼쳐들던 우리네 선조들이 본다면 고개를 가우뚱하지 않을지.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육전소설

이 책에는 심청전과 전우치전, 저마무전을 실어 두었는데 예전의 어투와 편집방식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 독자들의 흥미를 돋운다.



조웅전

지은이와 지은 때를 알 수 없고 국문으로 된, 조선 시대의 대표적 군담(軍談) 소설이다.



월봉산기

작자 미상이며 삼언이박이 1620년대 작품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조선중기로 추정되며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것을 한국고전소설 모음집에서 기록한 것이 최초이다.



박씨전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로 <박씨부인전>이라고도 한다. 박씨 부인이라는 가공인물을 이시백(李時白)·임경업(林慶業) 같은 역사적 인물과 함께 등장시켜 초인간적 활약을 그린 역사군담소설이다.



숙영낭자전

도선사상(道說思想)에 바탕을 둔 애정소설이다. <수경낭자전>·<수경옥낭자전>·<숙향낭자전>이라고도 한다. 한문소설 <재생연(再生緣)>을 번역·증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료가 전해지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장화홍련전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소설로 평안도 철산지방에 실제로 있었던 계모의 흉계에 의한 원사(冤死) 사건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홍길동전

조선 광해군 때의 문인이며 정치가인 허균(許筠 : 1569~1618)이 지은 국문소설로 조선 인조 때를 배경으로 적서차별이라는 사회적 모순을 고발하면서 새로운 세상의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장끼전

작자·연대 미상의 고대 소설. 평을 의인화한 동물 우화 소설이다.

<사진제공 : 현실문화>